

# 100세 시대

# 인생 2모작 준비 ... 배우고 즐기며 살고파

### 창업준비에서 자격증·예술·교양 ... 없는 게 없어 수강생 年 30만명 ... 효율 높일 '컨트롤 타워' 필요

배움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은 물론 시·군·구 주민센터·백화점 문화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평생교육' 강좌가 열린다. 유료, 무료를 가리지 않고 강의의 질과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강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젊은층도 상당하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는 무려 9000개가 넘는다. 평생교육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풍요에 따른 배움에 대한 욕구 증가라고 답하기엔 어딘가 불충분한 감이 있다.

열한 현장에서 빠져 나왔지만 일했던 시절에 비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탓이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현재 살아있는 10명 중 4명이 98세까지 살 것이라는 기대 수명 예측까지 나온다. 어려서 공부하고,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쉬는 인생의 패러다임은 이미 무너졌다. 고령사회와 함께 이미 노년층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트렌드를 익혀야 남은 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먼저 노인들은 '행복 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 중 젊었을 때 미처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구 충족이 가장 절실하다. 광주 동구가 13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올 하반기 개설한 평생교육 강좌 53개 중 37개(70%)가 노년층이나 요가교실, 풍물놀이, 난타, 스포츠댄스 등으로 놀이 성향이 강하다.

비록 60대 이후 모든 일에 앞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젊은이들과, 특히 자녀나 손자들과 소통을 유지하려는 주부나 은퇴자도 많다. 광주 북구가 개설한 2개의 컴퓨터 강좌도 꾸준한 인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기를 익혀 손자들과 소통하고, 사회 움직임도 빠르게 접하는 데 재미를 붙인 것이다.

학창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해 후회스러운 마음에 외국어에 도전하는 이들도 있다.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가 아니다. 간단한 기초회화 정도를 익히거나 은퇴 후 해외여행을 나가 조금이나마 배운 티를 내고 싶은 마음에서다. 광주 남구가 북구가 각각 2개의 영어교실을 운영중이며, 광산구는 원어민 영어회화교실을 3개나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문화센터)도 최근 수준에 따른 5개의 영어강좌를 개설했는데, 모두 이틀 안에 마감됐다.

식물관리사, 독서교육 지도사, 논술지도사, 남도전통음식지도사, 요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등 인기 강좌들을 앞다퉈 운영하고 있다.

광주대가 만 4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오픈마켓 창업과정과 은퇴자 협동조합과정, 경비지도사, 교육상담기관 창업과정은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다. 또 대학들의 바리스타 과정이나 프랜차이즈 창업, 부동산경영매도 수강생들이 몰리는 마천까지다.

### 수강자 수준 맞춰 교육

◇원하기만 하면 집에서 무엇이든 수강=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은 각각 106개 총 212개이다. 광주지역 평생교육 기관은 89개(2010년)→98개(2011년)→106개(2012년), 전남지역 평생교육 기관은 93개→99개→10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의는 주로 광주·전남지역 40대 40대 및 전문대학과 각 시·군·구의 동이나 면 단위 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년층을 즐기기에 알맞은 일반적인 강좌는 집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전문성이 필요한 강의는 대학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것도 모든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자 수준에 맞는 대학(전문대)이나 강의를 고르거나 하면 된다.

강좌 수(연간 상·하반기 2차례)는 연간 광주가 3840개, 전남이 5256개로 모두 9096개나 된다. 이용자 수도 약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9000여개의 강의 내용이 저마다 다른 것은 아니다. 우선 수강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또 대학은 비교적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좌 내용이 다양한 반면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해당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탓에 내용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

광주·전남지역 강좌를 내용별로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50%를 차지하고 인문교양이 20%, 직업능력 20%, 학력보완 10% 등의 순이었다.

◇못 배운 한 풀고, 늦은거 재밌어 학위까지=연말 생각하기엔 시니어 노년층은 대다수가 노후 준비를 목표로 평생교육을 받는 듯 하다. 하지만 평생교육 수강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다. 광주·전남 수강생들의 65% 정도가 인문교양 또는 문화예술 분야 강좌를 듣고 있다. 그 저 배우는 것이 좋아 강좌를 찾아다니는 이들이 태반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일부 구청 문화센터에는 어김없이 한글을 깨치거나 초등과정을 배우는 문해학교·한글학교가 개설돼 있고, 항상 수강생들로 만원이다. 배교품 해결이 우선이던 시절, 못 배운 한을 늦게나마 풀려는 이들이다.

문화산책·논어·명심보감 등 문해교양 분야의 강좌는 수년 이상 이어 온 단골 메뉴다. 특히 전남대 박물관 문화강좌는 18년 전통의 우수 프로그램이며, 롯데백화점의 문화탐방 강좌도 모집 2시간 만에 정원이 마감되는 등 문화·교양 분야의 수강생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서예·한국화·수채화·성악 아카데미·플루트·제트피아노 등의 예능을 습득하려는 백발 신사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내친 김에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얻어 4년제 대학 졸업의 자격을 부여받는 학위취득과정에 도전하는 은퇴자들도 상당하다. 보육교사(2급)·사회복지사(2급)·평생교육사·음악학사·건강가정사 과정은 국가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위 취득까지 가능해 학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다.

### 인문교양·문화예술 최다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가동 필요 =한해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9000개의 강좌가 진행되지만 수강생들은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강좌 정보를 알 수는 없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지자체, 기업, 민간 등 다수의 기관들이 제각각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같은 강좌라도 기관마다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고, 연계성이 나 체계성도 없어 선택이 불편이 크다.

평생교육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강좌의 정보를 종합·분석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4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했지만 초창기인데다 예산이 거의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106개 기관과 3000여개의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전남엔 아직 평생교육진흥원조차 없는 상태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재석 팀장은 "대학은 단순 취미나 오락성을 배제한 수준 높은 강좌나 자격·학위 취득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접근성·이용성이 좋은 강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퇴자·노인들도 OK

◇100세 시대 '은퇴 후 삶' 다시 설계 = "나도 이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어"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한 70대 노인의 말이다.

사회 일선에서 물러난 은퇴자나 노인들도 다시 날고 싶어한다. 삶의 치

### 50대는 창업 실무 강좌

◇창업준비·자격증 취득·재교육 통한 제2의 도약=갈수록 고용주기가 짧아지면서 평생교육 강의실에는 50대 초반의 수강생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노인이라고 부르기에 아직 젊고 중년이라 칭하기엔 어색한 이들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시니어들은 재취업을 겨냥한 국가자격증 취득, 창업을 위한 실무 강좌를 주로 듣는다.

조선대의 아동미술심리지도사와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항상 최고 인기를 끈다. 자격증은 해당 업종 취업은 물론 관련 분야 강사로 활동하는 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들은 한자·한문지도사, 조경기능사, 약용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채화' 강좌 수강생들이 29일 체육대 7층 강의실에서 서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평생교육 강좌내용 (1개월 이상 주요 프로그램)

#### ◆ 광주지역

교육기관	강좌수	학력보완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타
대학부설	993	101	365	194	333	-
원격형태	107	36	30	41	-	-
사업체부설	782	2	22	86	672	-
시민사회단체	48	1	23	13	8	3
언론기관부설	60	-	56	2	2	-
지식인력개발형태	133	43	76	7	7	-
평생학습관	1,098	125	284	250	424	15
계(%)	3,221(100)	308(9.6)	856(26.6)	593(18.4)	1,446(44.9)	18(0.5)

#### ◆ 전남지역

교육기관	강좌수	학력보완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타
대학부설	558	154	163	87	152	2
원격형태	44	-	28	10	6	-
사업체부설	695	4	24	59	608	-
시민사회단체	274	25	157	21	64	7
언론기관부설	64	-	56	3	1	-
지식인력개발형태	72	7	47	11	7	-
평생학습관	968	3	77	334	528	26
계(%)	2,675(100)	193(7.2)	552(20.6)	525(19.6)	1,366(51)	35(1.3)

(자료:한국교육개발원(2012년)자료 재구성)

**투자, 자산관리·부동산개발, 외식투자, 실물투자, 금융투자의 안전한 길잡이**

특별한 꿈을 꾸고, 특별한 꿈을 이루어 주는 전문회사

## 투자, 자산관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탁월하고 정직한 전문가 그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귀하(사)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으로 관리하는 전문가 그룹.  
지금 당장 상담하십시오.

"연수익률 30%~100%는 되어야 대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투자할 만합니다"

**꿈이 특별한 회사 인재모집공고** 원캐피탈그룹(주)과 가족 회사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싶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특별한 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남다르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귀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원캐피탈그룹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꿈을 꾸십시오.  
인생은 한번뿐입니다.

☞모용브랜드: **LANOVIA** **베블러스**

회사명	모집인원	공통지원자격	비고
원캐피탈그룹(주)	0명	·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성별제한이 없습니다. · 국적제한이 없습니다. ·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직해야 합니다. ·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외국어-영어, 중국어)	
코인베스트(주)	0명	·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직해야 합니다. ·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태이블(주)	00명	·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직해야 합니다. ·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리치아카데미(주)	00명	·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직해야 합니다. ·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 능력이 필요합니다.	

### 진행중인 투자 프로젝트

<p>사업명: 000아파트 신축 공사</p> <p>규모: 200세대</p> <p>투자액: 30억</p> <p>예상수익률: 170%</p>	<p>사업명: 0000 외식 사업</p> <p>규모: 80평</p> <p>투자액: 3~5억</p> <p>예상수익률: 월 3%(연 36% 지속수익)</p>	<p>사업명: 000복합시설 신축공사</p> <p>규모: 연 5,000평</p> <p>투자액: 15억</p> <p>예상수익률: 800%</p>
--	---	---

투자·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 W 원캐피탈그룹주식회사

대표전화 : 82, 062, 653, 7500  
상담전화 : 010, 3626, 0309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85-2 원캐피탈그룹 빌딩 2F

Won Capital & Investment Co., Ltd.

## 빛의만평

- 김종두

우린 묻는걸 좋아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